

대회 2연패 등 ‘스타선수’ 탄생 기대

전국체전 제주선수단 전력분석 (하)체급종목
유도 11개 최다 메달 획득 가능성 높아
레슬링 등 계체·경기 컨디션 조절도 관건

제주선수단은 제100회 전국체전 체급종목에서 레슬링 남고부·남대부·남일반부, 복싱 남고부·남일반부, 씨름 일반부, 유도 남고부·남대부·남일반부·여일반부, 태권도 남고부·남일반부·여일반부에서 25개 정도의 메달이 확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종목에서는 백중세인 전력을 보이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더 많은 메달도 기대해볼 만하다. 레슬링 남일반부에서는 자유형 57kg급의 송현식(제주도청)이 올해 각종 전국대회 1위를 휩쓴 기세를 이어 전국체전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그레코로만형 130kg급의 조영민(제주도청)도 지난해 전국체전 연속 메달을 노리고 있다. 남대학부에서는 그레코

로만형 67kg급 안형균(제주국제대 4)의 금메달 가능성이 높으며, 남고부에서는 그레코로만형 97kg급의 이민호(제주고 3)에게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남일반부에서 자유형 61kg의 김효준(제주도청)과 그레코로만형 77kg의 박대건(제주도청), 남대학부 그레코로만형 82kg급의 강수병(제주국제대 4)은 백중세로 분류된다. 복싱 종목에서는 남일반부 라이트웰터급의 강현빈(국군체육부대)이 메달을 위해 막바지 맘을 흘리고 있으며, 남고부 웰터급의 이신우(방송통신고 2)도 입상이 유력하다. 남대학부 라이트웰터급의 전동훈(웅인대 3)과 남고부에서 밴텀급 윤정빈(남녕고 2), 라이트웰터급 김동은(남녕

고 2), 미들급 허정재(남녕고 3)는 백중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씨름은 일반부 청장급에서 올해 2관왕을 기록하며 전국 최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용(제주도청)의 경기가 기대된다. 용장급 이정훈(제주도청)도 지난해 전국체전 3위에 이어 연속 메달에 도전한다. 백중세인 역사급의 이호진(제주도청)도 주목할 선수다. 유도는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은 11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남고부 100kg급의 김세현(남녕고 2)과 남대학부 73kg의 양승준(경기대 3)이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서 입상권에 들며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남일반부에서는 60kg급 김재현(국군체육부대)과 73kg급 서동규(제주도청), 90kg급 이승수(한국마사회), 100kg급 김재운(한국마사회)이 유력한 메달 후보로 꼽힌다. 여일반부 57kg급의 김잔디(한국마사회)와 78kg급의 황예슬(제주도청), 무제한급의 이은주(제주도청)도 입상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일반부 혼성단체전에서 제주선발의 메달도 노리고 있다. 이밖에 남고부 90kg급 정민국(남녕고 1)과 여고부 78kg급 강윤지(남녕고 2), 남일반부 무제한급 고민혁(제주도청), 여일반부 52kg급 김미리(제주도청)는 백중세 전력을 보이고 있다. 태권도에서는 남고부 68kg급 박수연(남녕고 3)과 남일반부 87kg급 이동영(제주도청), 여일반부 53kg급 유수연(제주도청)이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남고부 80kg급 강상현(남녕고 2)과 여대학부 46kg급 한나연(한국체대 1)은 백중세로 판단된다. 제주선수단 총감독인 김대희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대회 당일 경기 능력 극대화를 위해 컨디션 조절 등 적극적인 선수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체급종목은 계체 및 경기 당일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고, 선수 개인의 건강관리와 체력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ipyo@halla.com



제1회 제주도지사배 전국킥복싱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제주도킥복싱협회 제공

제주도지사배 전국킥복싱대회 성료

젠와코, 존오르티즈에 3-0 완승
챔피언전 2경기 최주남 TKO승

제1회 제주도지사배 전국킥복싱대회가 지난달 29일 제주시 조천읍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 챔피언전 1경기에서는 젠와코(태국)가 존오르티즈(한국귀화)를 3-0 판정으로 누르고 승리를 차지했다. 스웨덴 귀화선수인 존오르티즈는 180전 이상의 전적을 보유한 베테랑 젠와코를 맞아 투지를 불태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최주남(마살아트피트니스)과 박

도현(인천 계양JH집)이 맞붙은 챔피언전 2경기에서는 최주남이 파워풀한 로킥으로 2라운드 TKO승을 거뒀다. 이어 진행된 챔피언전 3경기는 예멘 난민 출신의 아스카르(제주 일도체육관)가 한창우(동탄와코집)를 상대로 2-1 판정승을 가져갔다. 부만철 제주도킥복싱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제주도 킥복싱 역사상 가장 큰 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앞으로 2-3년 후 세계대회와 국제 교류전 등 세계 각국의 유명 선수들을 제주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도내 中 야구선수 80% 제주고 진학 합의

제주고·학부모·지도자 등
1일 야구부 운영 합의문 마련
신입생 모집·선수 수급 조율

제주고등학교와 도내 야구선수 학부모들이 제주고 야구부 신입생 모집 및 운영을 위한 합의문을 마련했다. 고용철 제주고등학교장과 도내 초·중·고 야구부 학부모 대표 및 지도자, 제주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임회한 가운데 ‘제주고 야구부 운영을 위한 각 대표 합의문’에 서명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주고는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로 도내 중학교 야구부 학생 2명을 모집하고, 문제부 주관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이 시행돼 학교 야구단이 전환 대상으로 결정돼 고교 야구부처럼 대회 참가와 실적이 인정될 때까지만 야구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도내 중학교 야구부 학생 중 80% 이상 제주고로 진학하지 않고 타시도 야구부로 진학할 경우와 학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고등학생들



고용철 제주고등학교장과 도내 초·중·고 야구부 학부모 대표 및 지도자, 제주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이 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고 야구부 운영을 위한 각 대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 불법적으로 합속할 경우에는 야구부를 해체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선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 가숙을 하지 않게 하는 한편 초·중학교 학부모는 학생선수들을 도내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로 약속했다. 제주도야구소프트볼협회는 도내 야구 선수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도자들은 운동부 훈련 및 방과후 학생선수 생활지도(학교 밖 기숙방지 등) 과정에서 학교

규칙 및 학교장 지시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정규수업 준수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철 교장은 “도내 중학교 야구선수 중 제주고 진학 비율을 놓고 저는 90%, 협회장은 70%를 제시해 줄다가기하다 기자회견 직전에 80%로 합의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선수수급이기 때문에 중학교 선수들의 제주고 입학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김영주 전국여자검도 3위
여자대학일반 2부 개인전

김영주(광일검도관·사진)가 제12회 미르치카타 전국 여자 검도대회 여자대학일반 2부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지훈련 겸 전국대회에 참가한 김영주는 46개팀 12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 개인전에서 제주 검도 사상 첫 여일반부 메달리스트를 기록했다. 1회전에서 김현지(서울)를 상대로 손목치기 득점을 얻어내며 첫 승을 신고한 김영주는 2회전에서도 김은혜(대전)를 맞아 손목치기 득점으로 32강에 진출했다. 이어 천희정(경기)에게 퇴격허리치기 2연속 득점으로 16강에 진출한 뒤에는 김민경(경기)을 머리와 손목 2연속 득점으로 제압했다. 김영주는 8강전에서 신유주(서울)에게 손목으로 선득점 후 머리치기를 허용당해 동점을 기록했지만 연장전 끝에 회심의 손목치기로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준결승에서 이누리(서울)를 만난 김영주는 머리 공격을 내주며 3위에 머물렀다.

표성준기자



김성훈(오른쪽 세 번째)과 오정수(오른쪽 네 번째)가 입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 김성훈·오정수, 당구 ‘준우승’

태백산배 전국3쿠션대회
첫 전국대회 단체전 입상

제주선수단이 2019 태백산배 전국3쿠션당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성훈·오정수는 지난달 25-29일 강원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전문선수부 복식전 결승에서 최재동·윤서하(강원)에 저 준우승을 기록

했다. 제주선수가 전국대회 개인전에서 우승 등 입상한 경험은 없지만 단체전 입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훈·오정수는 전국에서 40개팀이 참가한 전문선수부 복식 예선 경기에서 2승을 거두며 조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이어 16강 방정국·김용철(경기), 8강 정해명·유명호(서울), 4강 고준서·김태관(서울)을 차례로 눌러 결승에 올랐다. 표성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미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백꽃 필 무렵(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파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신입사관 구해령(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정보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삼맛 나는 오늘 11:00 예나갤러리 11:30 예나메이선 런닝맨2 스페셜 11:45 헬로카봇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당맨 유치원 9:15 마하와 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55 꼬마버스 타요 15:55 출몰 슈퍼펄스 15:10 로보가 폴리 16:40 덩보당 유치원 17:20 그림을 그려요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19:30 생방송 판다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21:50 EBS 디큐프라인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 뉴스 14:10 남북의 창(재) 14:50 전국노래자랑(재) 16:00 시사건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반지의 비련일기 2 17:15 옛 내 친구는 빅파이트 17:30 강력추천 베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0 신입사관 구해령(재) 13:30 헬로카봇 유니버스 2 13:50 신비한 자연교실 2 15:20 박사님 15:50 빠삭 메카드 16:20 모두 다 콩파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디큐에이 그 사람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2: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2019 대한민국 프라임테이션 대회 14:00 뉴스브리핑 16:00 행복실제 앞배기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7:00 김기림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고대창가에 이한열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술집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판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소필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2:55 더 라이브 23:35 숨터 23: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살림하는 남자들 22: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3:10 셀바이벌 1+1 1부 23:50 셀바이벌 1+1 2부	18:25 중국의 아이들 19:00 특성화고 학생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3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21:30 어쩌다 발견한 하루 22:05 제주MBC 시사선단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19:00 골목 NOW 제주 스페셜 19:30 행복출전 해피타임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1부 21:30 영재발굴단 2부 22:00 시크릿 부티크 1부 22:40 시크릿 부티크 2부 23: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중원의 골목식당 2부	7:00 KCTV 뉴스 8:30 신 삼촌 어디갑수와 9:30 열린TV광장 10:00 글로벌 아카데미 12:10 KCTV더뉴스패설 14:00 KCTV 뉴스 15:00 글로벌 아카데미 15:50 KCTV 시청자 세상 16:10 KCTV 더뉴스패설 18:30 신 삼촌 어디갑수와 19:00 KCTV 뉴스7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일	
	36년 음주 또는 밤 늦게 귀가하면 불리하다. 48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60년 타이밍이 맞으면 호재, 신중함이 필요. 투자가 타이밍이 있다. 72년 부모나 처의 도움이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투자하라. 84년 좋은 만남 또는 소개가 있다. 기본으로 좌우되는 것은 글썽.
	37년 오늘을 유쾌하게 보내려 노력하라. 49년 늦게 귀가하면 불리. 가정에 불화가 온다. 61년 언변, 말로 하는 직업은 인정받고 수익증대. 73년 주변정리 또는 정돈이 일을 향상 시킨다. 사업장 주변을 깨끗이 하라. 85년 불투명한 오늘보다 계획있는 미래설계 필요하다.
	38년 두통이나 신경성 질환이 온다. 재물과 관계된 일이 발생한다. 50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베풀수 있는 기회가 온다. 62년 일이 앞에 산적해 있다면 미루지 마라. 74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는 듯하나 방해자가 생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경계하라. 86년 평생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준비할 것.
	39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이나 주의하면 해소된다. 51년 문제가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吉. 63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이익이 생긴다. 계약건은 시간 활용이 중요. 75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이 전념하라. 87년 전 문직은 이익이 따르고 직장인도 인정받는다.
	40년 애착사람의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52년 거래나 계약관계로 몸이 분주하고 소식이 찾아온다. 64년 부부간에 논쟁이나 고부갈등이 있을 수 있다. 76년 집안에 환경변화를 주거나 내일을 해 보려고 주변과 상의한다. 88년 상대를 먼저 배려함이 나를 인정받게 한다.
	41년 재물에 이익이 생기거나 인심 쓸 일 생긴다. 53년 타인과의 비교함은 상대와의 다툼이 되니 언행 조심. 65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참견은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것. 77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은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하라. 89년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길.
	42년 시대, 처가 문제 또는 자녀로 인한 걱정이 생긴다. 54년 고집과 자존심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존중과 화합을 병행하라. 66년 우환으로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78년 취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 신사숙고. 90년 소화가 장애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43년 평소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익이 될 수 있다. 55년 분심 또는 실수가 있으니 금전 또는 지갑 보관을 잘 해야 한다. 67년 구매통용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79년 서두르면 일이 안풀리니 신중하라. 특히 금전 대출은 불리. 91년 가족간 의사 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 되는 날.
	44년 도움이 있으나 마음이 바빠고, 몸이 분주하다. 결과가 있다. 56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는 보류. 68년 재물 손재수가 있다. 외출시 문단속 철저. 현금 გადა 지참 금지. 80년 의욕, 자신감이 저하되고 새로운 변화를 원함. 92년 칭찬을 아끼지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화목을 도모하라.
	45년 슬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57년 재물운이 길하다. 부모나 처,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다. 69년 남의 일에 간섭은 나에게서 골방신이 된다.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업무나 성과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 93년 불만이나 원하는 것은 가슴에 묻지말고 말로 표현하라.
	46년 자리를 함께하며 음식을 나눌일이 생긴다. 58년 생각이 많고 같갓도 많지만 마음은 허전하다. 70년 업무나 취업에 대한 생산성있는 소식을 접한다. 재물운이 길하다. 82년 투기나 도박에서 불리하니 경마 도박에는 관심갖지 마라. 94년 활동이 많고 자녀에 관한 일로 분주. 외부 활동에서 이익이 온다.
	47년 업무과다에 따른 스트레스가 따른다. 도움을 받아라. 59년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하다. 조급함이 실수를 부른다. 71년 자녀문제나 처가의 사소한 일로 가정불화. 83년 부모님이나 옛인들의 충고가 있으니 삶의 지표로 삼자. 95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은 피할 것. 자랑하는 일은 불리.